

#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매년 증가

### 전체 투자자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 94% 매년 손실계좌수는 이익계좌수의 두배 이상 충분한 숙지 필요... 권유업자인지 확인 후 거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과 개인 비중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시 유사 혹은 무인간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6.04% 감소한 4510만 계약으로 집계됐다. 2017년 소폭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분기 만에 1520만 계약을 넘어서며 2017년의 34% 수준에 다다랐다.

개인투자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자 수는 4만3612명을 기록했고 이 중

93.6%가 개인투자자에 해당했다. 2017년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국내 장내파생상품 개인투자자 거래량의 4.4%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0.2%에 불과했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비중은 2014년 처음으로 3%를 넘어선 후 2017년 4.4%, 2018년(1분기) 5.2%까지 증가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을 시현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손실계좌수가 이익계좌수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았다.

외환차액(FX마진)거래는 2005년 허용 이후 급성장했지만 투기성 완화를 위한 증자금융 인상 등으로 2016년부터 거래대금이 급감했다. 2005년 765억 달러였던 FX 마진거래 규모는 2009년 5067억 달러, 2011년 6654억 달

리를 기록했지만 2016년 1097억 달러로 줄었다. 2017년에는 72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5년 거래대금보다도 감소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투자손실을 지속했다. 2016년 4100만 달러 손실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1분기 만에 2200만 달러 손해를 봤다.

금감원은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 선물업자 등 불법업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영업한다"며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불법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를 하면서 소액 증거금에 따른 높은 레버리지, 일정금액 환급 등으로 유인하거나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도박성의 거래를 체결(미니 선물업자)하는 등의 행위는 무인간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해외거래소 회원인 해외 선물중개회사(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장내 파생상품 중개 가능 증권사·선물사는 50개사이며 이중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14개사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선물사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FCM은 34개사이며 이중 6개사가 65.0%의 중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FX마진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7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국내 중개사에게도 개인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국내시장 수준의 사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수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이전에 상품관련 이해나 거래위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 '농가소득증대 위한 노고 감사드립니다'

### 전북농협, 이달의 우수조합장 선운산·오산농협 시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1일 지역본부 정례대회에서 농가소득증대와 전북농협 위상제고에 기여한 선운산농협·오산농협 조합장이 '이달의 우수조합장'에 선정되어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상원 조합장 오양환 조합장

선운산농협 오양환 조합장은 경제사업 활성화, 농가소득증대 활동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선운산농협은 조합원들의 영농지원을 위해 무인간 공방제, 농기계은행사업 등으로 일손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고창 석정힐스에 웰파크 지점을 개점하여 한우명품관, 로컬푸드매장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에 기여하고 고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산물 홍보와 새로운 농산물판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오산농협 강상원 조합장은 영농지원, 창의적 사업 추진 우수로 농가소득증대를 견인하고 있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오산농협은 쌀, 보리가 주 작목인 조합원들 영농을 위해 육묘공급, 방제, 수매, 판매까지 전 단계에 조합원

영농지원에 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8년도엔 '벼 소식재배농법'을 적극 추진, 조합원의 영농비절감과 함께 생산량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뒀고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해결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오양환 조합장과 강상원 조합장은 우수조합장에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산물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3월이면 일반조합원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농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해 작은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기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5일부터 자산운용사들에 투자 입김 형태로 위탁 운용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 개정 후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일임업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을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됐다.

다만 운용사가 의결권 위임을 받더라도 상법상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따라 동일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견이 나뉘면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자산운용사에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간 일임 영역이 중복 카운팅되는 문제 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뉴스시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30여일 앞두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전북지역 곳곳에 배치할 안내문과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전북 방문...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지난 10일 전북농협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허식 부회장은 "며칠째 계속되는 한파에 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

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근무자들의 안전사고에 최우선을 다 하며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예비활동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역본부·시군지

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가동중이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생식회를 긴급 공급하고 축협을 통한 취약농가 백신공급, 접촉지원,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투입해 방역취약농가에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1일 텀블러 사용을 인종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환경운동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에서 시작한 환경운동으로 사용하는 텀블러 사진을 찍고 여기에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인증하면 1건당 1000원씩 적립된다.

적립금은 기념 텀블러 제작 등에 사용되고 판매 수익금은 캠페인에 활용된다.

이선홍 회장은 "저의 챌린지 참여가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걸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전북도 상공인 및 도민들 모두가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



린저로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김홍식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올해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개인용 텀블러와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고 각종 행사와 회의시 다회용품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